

강진청자축제 23일 개막... '반값 관광' 흥행 시험대

다음달 3일까지... '청자와 차·백자·장미와 만남' 68개 프로그램

백련사 동백축제도 함께 열려...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 시작

강진군이 K-컬처 원조 청자축제로 올해 첫 축제의 포문을 연다. 청자축제 기간 처음 선보이는 '반값 관광'도 흥행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강진청자축제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규모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 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축제는 청자의 정제성을 살린 '물레와 놀래'를 테마로 물레를 직접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흔치 않은 체험 코스가 마련되며, 여기에 발맞춰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중'의 이름으로 선보인다.

차와 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한영 차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강진 차와 청자 찾전을 같이 판매하

며, 장미와 청자의 만남에서는 화훼의 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게 칠랑에서 공수된 저마다 다른 15가지 빛깔의 장미들을 청자 화병에 꽂아, 청자의 바탕색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청자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는 땅심화훼법인에서 관광객들에게 장미 천송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茶山) 정약용이 극찬한 강진의 '차'와 전남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장미'와 도자의 앙상블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마케팅 축제로 평가받는다.

축제장 한쪽에는 강진 주요 정책 4차산업 푸소, 고향사랑기부제, 반값 가족 관광 강진, 4차산업혁명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며 '대면 균형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자 축제는 남도의 온화한 기후를 무기 삼은 봄 냄새 물씬 풍기는 축제로, 이미 꽃망울을 터뜨린 축제장의 흥분과 지난해 5월부터 군에서 정성으로 관리해 온 유채꽃밭이 마음 급한 상춘객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도 청자축제 관광객 물이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백축제는 만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 1500여 그루의 아름다운 장관과 함께 다산과 혜장 스님이 나누는 역사적 공간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1km의 오솔길은 소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등 천연림이 우거져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호젓하게 걸어보기 그만이다.

특히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청자축제가 견인하고 반값 혜택이 밀어주는 관광도시, 강진의 올해 첫 도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모일지 벌써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반값 관광에는 지난 15일 기준, 1987팀 5829명이 신청했다.

반값 여행은 강진 이외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 사전 신청 후 강진을 방문하면, 강진 여행 중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반값 가족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대거 유입의 수혜를 관광업(3차산업)은 물론, 강진의 특산물 등 1차산업까지 그 파급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골목 상권과 함께 강진 경제 전반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시장인증 품질 보증제 상표인 '천년이음 나주배' 품질과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시장 품질 인증으로 나주배 명성 되찾는다

고품질 배 생산·선별·유통 총력

나주시가 시장이 보증하는 배 품질 인증제 '천년이음 나주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8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상담을 벌인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나주시장 인증 품질 보증제'인 천년이음 나주배 상표를 선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배 최대 주산지인 나주시는 자치단체장이 보증하는 과일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이 배는 생산 단계부터 생산조절제 무처리(무GA),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색깔, 신선도 등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선별돼 유통된다.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생산조절제를 쓰지 않은 '무GA' 천년이음 나주배 신고 품종 140t이 출하됐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는 새 품종인 신화·창조배 13t이 출하됐다. 명절 이후 비수기에도 추황배를 3t, 신고배를 28t을 출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년이음 나주배'를 선보인 이후 올해 설 명절 연휴까지 총 184t 규모 출하 실적을 달성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의 수취가는 일반(특품) 배보다 5kg 기준 1만2500원, 7.5kg 1만8700원을 더 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나주 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통

해도 고품질 배 생산과 선별, 유통 체계 안착에 힘쓰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배 수확기까지 나주시는 농과 과원을 찾아가 8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상담을 벌인다.

나주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신화·창조 등 신품종 배 재배 방법을 농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배 품종에 따른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주시는 내다봤다.

또 품질 보증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 생육기,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전문 재배기술 집합 교육을 연 3회 실시하고 배 생산 단계부터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전수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나주배를 소비시장에 전면 배치하고 365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대표 과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맛있고 품질 좋은 배 생산이 중요하다"며 "시장 인증 품질 인증제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은 물론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인지도 확보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 완료 7개월 휴관 경로식당 운영 재개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휴식기에 들었던 경로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다.

장흥군은 지난 15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7개월간 임시 휴관해 왔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날 경로식당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직접 나눠줬다.

장흥군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운영 재개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김성(오른쪽) 장흥군수가 다시 문을 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하천구역 불법경작 단속 23일까지...무단 점용 행정 조치

화순군은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 불법경작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단속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면서 생기는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은 공적 자원인 하천·하천수의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안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등 계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예정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강진군 임산부 전용 안전띠 보급

출산가정 154만원 산후비용

강진군이 이달부터 임산부 전용 차량 안전띠와 자동차 표지를 나눠준다.

임산부 전용 안전띠는 복부 압박감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 때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

강진군에 사는 16주 이상 임산부라면 최장 6개월까지 무료로 사용한 뒤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6개월 미만 임산부가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지다.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진군은 이 밖에도 출산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154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시술 종류 및 나이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한방 난임 치료 대상자에게는 1인 180만원 범위 내 한약을 지원한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이동 환경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띠·차량 표지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보건소 지역보건팀(061-430-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 보리·양파 생육 재생기 맞아 기술지원단 운영

병해충 방제 등 관리법 현장 전파

장성군이 보리·양파가 다시 자라는 시기를 맞아 이달 27일까지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월동 작물인 맥류·양파는 겨우내 성장을 멈춘 뒤 이즈음 새 뿌리가 난다.

평균 기온 0도 이상이 나흘 이상 지속하면 생육 재생기로 판단한다.

지난달까지 장성지역 평균 기온은 1.5도,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였다. 이달 중순부터는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높아 생육 재생기가 시작됐다고 장성군은 설명했다.

장성군은 지난 13일부터 현장 기술지원단을 농가에 파견해 비료 사용법과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전하고 있다.

생육 재생기의 작물은 많은 양분이 필요하다. 맥류는 10a(아르·1a=100㎡)당 9~12kg의 요소를 살포해 뿌리 활력을 증진하고, 보리밭기(답작) 작업으로 서릿발 피해와 작물 쓰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양파는 10a당 요소 17kg, 염화칼리 8kg을 생육 상황에 맞게 살포하고,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 방제를 해 노균병을 예방한다.



장성군 현장 기술지원단이 보리 농가를 찾아 토양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한편 장성군의 맥류 파종면적은 이달 현재 266.6ha로 전년보다 22% 이상 증가했다. 장성군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대체작목 육성에 힘써왔다. 앞서 6일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산 밀 재배 기술 교육을 열기도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맥류와 양파는 생육 재생기를 잘 지나야 고품질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며 "필수 관리법이 농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의 사계' 전시

실감 미디어 콘텐츠 선보여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담양읍 천변리·사진)이 실감 미디어 콘텐츠로 '대나무의 사계'를 선보인다.

담양군은 한국대나무박물관 1전시실에서 기획 전시를 최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준비해왔다.

지역 특화 자원인 대나무를 실감 나는 미디어 콘텐츠로 표현한다. 담양만의 지역 특성을 토대로

'대나무의 사계', '대나무의 모든 것' 등 이야기를 구성했다. 오는 3월3일까지는 1전시실 기획전시 개관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모바일 속박 앱 '여기어때'를 통해 담양에서 머무르면 1박당 2명(선착순 1000명)이 전시를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 선착순 100명은 담양 사랑상품권을 1인당 1만원 받을 수 있다.

전시를 본 뒤 소셜미디어(SNS)에 후기를 남긴 선착순 200명에게는 작은 여행 가방을 준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상반기까지 하천정비 예산 60% 집행

함평군이 올해 상반기까지 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60%인 12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함평지역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모두 200억원이다.

3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26억원을 쓰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하천 정비 68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개 지구 57억원 ▲자연재해 위험개천지구 정비사업 1개 지구 3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함평군은 환경부, 국회 등에 하천정비 예산 투입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억원 등 총 국비 81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발생 이전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 하천정비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함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